

한국은 일본과는 달리 음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음력 8월 15일이 되면 추석이라는 명절이 있습니다.

추석은 한국 최대의 명절로서, 많은 한국인들이 매년 이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추석은 일본의 오봉, 이국의 추수감사절 등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추석은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오랜만에 귀향을 하는 아주 특별한 날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귀향행렬을 한국에서는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한국인들만의 남다른 고향에 대한 향수때문 일 것입니다.

추석에는 그해 수확한 곡식을 사용해 각종 전통음식을 만들어 먹고, 아침에는 조상에게 제를 지냅니다.

또 오랫동안 보지못한 가족들끼리 모여, 하루종일 전통놀이를 하며 보내기도 합니다. 또 조상의 산소를 찾아가, 풀을 베거나, 산소 주위를 깨끗이 청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추석날 밤의 보름달을 보면서, 자신의 소원을 빌기도 합니다. 하지만 추석이 항상 좋은것만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기 때문에, 추석연휴동안 한국의 교통은 엄청나게 혼잡해집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상대에게 주는 값비싼 선물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부수적인 것일뿐입니다.

추석은 현대기계 문명에 피곤해져 있는 한국인들이 며칠동안이라도 맘편히 고향에서 즐길 수 있는 한국인들의 마음의 명절입니다.